

제1절 울진의 방언과 음운 체계¹²⁷

1. 분절음 체계

분절음은 주요 분류 자질인 [sonorant, syllabic, consonant]를 기준으로 [+son, +syll, -cons]의 모음, [+son, -syll, -cons]의 활음, [+son, -syll, +cons]의 비음과 유음, [-son, -syll, +cons]의 순수자음으로 분류하여 음성적 대조(contrast)를 중심으로 그 체계를 고찰하고자 한다.

1) 모음

중부 방언의 10모음 체계¹²⁸에서 e와 ɛ와 ə, y와 ø가 울진 지역어에서 논의의 대상이 된다. 우선 중부 방언과의 대응에서 보면 제1음절에서 중부 방언 e는 울진 지역어 i로 실현되고, 제2음절 이후에서는 변화가 없다.

① ki: (게) tilko (테리고) pi (베)

si:ta (세다) cite (除隊) tʰtuli (테두리)

c¹²⁹i:l (제일) mi:ta (메:다) pita (베다)

himeta (헤매다)

이밖에 kə (게:), cecak (제적) 등의 예외가 있는데 전자는 yə (여기), cə (저기)와 같은 현상으로 ‘게:’에 대응한다고 볼 수 없고, 후자는 이곳 언중들에게 일반화되지 않은, 특수한 환경에서만 사용되는 어휘이다. 제2음절 이후에서 중부 방언 e는 이 지역어에서 그대로 실현된다.

② múe (무게) u:nce (언제) nue (누에)

to:ŋne (동네) cike (지게)

중부 방언 ɛ는 이 지역어 e에 대응한다. 이는 음절 위치에 대한 제약이 없다. 중부 방언 e가 제1음절에서 이 지역어에 대응함은 제1음절에서는 e와 ɛ의 중화(neutralization)라기보다는 e에 [+high] 자질로의 변화가 와서 i와 e의 중화 현상이 일어났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ɛ에도 e에 자질 변화만큼의 위치 상승이 있어 e로 실현된다고 봐야 한다. 제2음절 이후에서 e와 ɛ의 중화는 e로 실현된다. 제1음절에서 i와 e의 중화나 제2음절 이후에서 e와 ɛ

127. 울진의 방언과 음운 체계에 관한 내용은 『울진군지』(2001, 울진군)를 요약정리하였다. 음운 체계에 대한 기술은 ‘주상대, 1989, 『울진 지역어 모음의 음운현상 연구』, 계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6-13쪽’에서 주로 인용하였다. 방언은 언어 분야에 있어야 하나, 지명 관계상 문학 부분에 수록한다.

128. 허웅, 1985, 『국어 음운학』, 샘문화사, 183-184쪽 참조.

129. 경구개 파찰 평음은 인쇄 편의상 ‘c’로 적는다.

의 중화는 조음위치의 상승이라는 자질 변화에 의한 e의 i에, ɛ의 e에 통합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예들이 있다.

③ se (鳥) cemi (재미) pe:mi (뱀)

some (소매) pope (보배)

이상에서 ɛ가 이 지역에서 실현되지 않음을 보았다. 이는 중부 방언 e와 ɛ가 이 지역어에서 e로만 실현되는데 ɛ는 제1음절에서는 [+high]로의 자질 변화가 일어나 e가 되고, 제2음절 이후에서는 e에 중화된다.

중부 방언 i와 ə는 ə로 중화된다. ‘늘 : (常), - 널 (板), 틀 (機), - 털 (毛), 들 (野) - 덜 (-먹다)’ 등의 예에서는 i와 ə가 음성적으로 다르게 실현되나 단독으로는 대조(contrast)의 기능이 없고, 오직 맥락 속에서만 변별성을 갖는다. i와 ə의 중화에서는 음성적으로 ə로 실현되는 것이 보다 일반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부 방언 y와 ø는 이 지역어에서 다음과 같이 실현된다.

④ ci (취) ki (귀) ti: (뒤) si (쉬-) tʰ (튀-)

si:ta (쇠다) ci:ta (찌다) ti 또는 te (되)

④는 중부 방언 y, ø가 이 지역어에서 i에 대응함을 보여준다.

이밖에 weguk (외국)에서와 같이 어두에서는 복모음으로 실현된다.

이상 모음에 대한 논의를 요약하면 이 지역어의 모음은 i, e, ə, a, u, o의 6모음 체계로 다음과 같은 대립쌍들이 있다.

⑤ ki: (蟹) : ke: (犬) ki (庇) : kə (消火)

tə:l (野) : tu:l (二) kəl- (掛) : ka:l (耕)

səli (霜) : soli (聲) non (沓) : nun (目)

son (手) : san (山) pe:m (蛇) : pə:m (虎)

kəm- (墨) : ku:m- (餓)

2) 활음

이 지역어에 대조의 기능을 가지는 활음으로는 y, w, h가 있다. ?는 aʔ(앗)에서와 같이 극히 한정적으로 실현되나 대조의 기능이 없으므로 제외한다. y, w는 ‘c’의 환경에서는 표면상 실현될 수 없다. 즉, 자음 아래에서는 실현될 수 없다는 표면 음성 제약이 있다.

h는 ‘voc-voc’의 환경에서는 삭제되어 어두에서는 실현되며, [+obst, -cont, -tense, -aspirate]에서는 유기음화에 관여한다. co:a (종+아), nakʰ (낱+고), apʰ:ci (업+히+지)와 같은 예가 있다.

그리고 활음 y, w와 모음과의 통합 관계는 다음과 같다.

⑥ y → ye yə ya yu yo

w → wi we wə wa

<표 31> 모음과 활음의 자질표

| | i e ə u o y w |
|----------|-----------------|
| High | + - - - + - + + |
| Low | - - - + - - - - |
| Back | - - + + + + - + |
| Rounded | - - - - + + + + |
| Syllabic | + + + + + + - - |

3) 비음과 유음

비음으로 m n ŋ

유음으로 l

대립쌍으로 mal (斗) : nal ka:m (柿) : ka:n (肝)

can (盃) : caŋ (場) cə (占) : cəŋ (場)

sə:l (元旦) : səm (島)

si:l (絲) : si:n (五十) pi:l (星) : pi:n (病)

등이 있다.

4) 순수자음

이 지역어 순수자음은 다음과 같다.

p t c k
p` t` c` k`
ph th ch kh
s
s`

이 자음은 모음의 음운현상 기술에 보조적인 것이므로 대립쌍들의 예시는 생략한다. 다만 s와 s'은 동남 방언의 하위 방언 간에 차이가 있는데, 이 지역어에서는 'sal (肉) : s'al (米), sada (賈) : s'ada (廉價)'에서와 같이 대립이 됨을 알 수 있다.

2. 운소 체계

1) 음장

음장이 변별적 기능을 가지는 다음의 대립쌍들이 있다.

- ⑦ ki (耳) : ki (蟹) nun (目) : nu:n (雪)
 mal (斗) : ma:l (言) sol (松) : so:l (刷子)
 təl (擧) : təl (滅) pe (船) : pe: (倍)

이것으로 보아 음장은 이 지역어에서 운소의 기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2) 성조

이 지역어도 경북 방언의 다른 하위 방언들처럼 위 ①의 음장과 함께 성조도 운소의 기능을 한다.

- ⑧ ㉠ kə'm (金) : kə (隙) sú (酒) : sul (匙)
 ph'i (稷) : phi (血) s'i (種) : si (鐵)
 təl- (晴) : tə- (入) mé (結) : me- (鋤)

| A | B | C |
|--------------|-----------|----------|
| ㉡ ka:lko (耕) | kalko (磨) | káko (換) |
| ta:lko (熱) | talko (縣) | táko (甘) |
| ma:l (言) | mal (斗) | má (馬) |
| pe: (倍) | pe (船) | pé (梨) |
| so:n (損) | son (手) | só (客) |
| ko:l (谷) | kol (怒) | kó (型) |
| thi: (飽) | thi (塵) | th'i (廓) |

위 ⑧의 ㉠은 성조상 고조(H조)와 저조(L조)에 의한 대립쌍들이다. 이에 따르면 성조에 의한 어휘적 대립은 H조와 L조의 이단 체계이다. 이 때 L조는 무표적이고 H조가 유표적이라 할 수 있다. L조가 H조로 교체되는 경우는 부재자질 규칙(default rule)으로 처리될 수 있다.

⑧의 ㉡에서는 A : BC는 음장에 의한 대립이고 AB : C는 성조에 의한 대립이다. 즉 음장을 운소로 하면 A와 B에서 음장이 무시된다. 음장과 성조상 H조가 유표적이란 면에서 B는 무표적 특질로 A와도, C와도 대립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A, B, C 전체의 관계는 수립될 수 없다. 여기서 A, B, C에 공통되는 운소적 자질은 성조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A의 장음은 B보다 음성적으로 낮게 실현된다. A가 B보다 상대적으로 저조이므로 A, B, C는 음성적으로는 H조, M조, L조로 실현된다. 실제적 음성 실현에서는 더 많은 단계의 성조 구분도 가능하나, 여기서는 그런 미묘한 차이는 배제하고, 단지 음장이 운소이고, 그 음장을 유지하는 모음

의 성조는 대립되는 단음에 비해 저조라는 것을 명시하기 위해 표면 음성형 기술에 3단계를 활용한다.

곧 이 지역어의 성조는 그 기저상 H조가 유표자질인 고, 저 이단체계인데, 음장과의 관계에서 장모음이 단모음보다 저조로 실현되기에 표면 음성형은 3단계로 실현된다.

이상 논의한, 이 지역어의 음운 체계는 다음과 같다.

분절음 체계

〈모음〉 I e ə a u o

〈활음〉 y w h

〈비음과 유음〉 m n ŋ

l

〈순수자음〉 p t c k

p' t' c' k'

ph th ch kh

s

s'

〈모음과 활음과의 통합〉 y → ye yə ya yu yo

w → wi we wə wa

운소체계

〈음장〉:

〈성조〉 H L → 기저 성조

H M L → 음장과 관계한 표면성조

3. 울진 방언의 특징적 어휘자료

1) 농사어

- | | |
|---------------------|---------------|
| • 나락 (벼) | • 지심맨다 (김맨다) |
| • 아시 [(논)애벌(매다)] | • 끈날 (보습) |
| • 새꿀 (쇠) | • 삽까래 (삽) |
| • 열개미 (어레미) | • 무꾸, 무수 (무우) |
| • 속꼬배이 (고갱이) | • 푸꾸미기 (호미씻이) |
| • 흘받이 (벧) | • 쇠째깨 (그네) |
| • 팬:다, 따깁다 [(장작)팬다] | • 족탁기 (회전기) |
| • 젓는다 [(논)을 훑친다] | • 텃줄 (자리개) |

- 품꾼 (놉)
- 잘개 (자루)
- 밭:가리 (벗가리)
- 찢개 (벼훅이)
- 미 (늬)
- 두불 [(논)두벌(매다)]
- 뺨지 (번지)
- 광:이 (괭이)
- 태상 (개상)
- 꾼:다 [(새끼) 꼬:다]
- 방석 ((짚) 명석)
- 절구, 도:구 (절구)
- 비죽 (빔)
- 당가리 (등겨)
- 까분다, 나뵈다 (까불다)
- 발독, 발뚜렁 (발독)
- 소구리 (바구니)
- 봉태기 (먹등구미)
- 비죽 (쌌기)
- 새참:, 참:, 새 (겉두리)
- 썬나락 (범씨)
- 매구, 깡마구, 깡매구 (깡과리)
- 호미, 호매이 (호미)
- 새시랑 (쇠스랑)
- 지모개미 (새뺨기)
- 노, 노끈 (노끈)
- 산대미 (삼태기)
- 고 (절구공이)
- 겨, 기 (겨)
- 치 (키)
- 갈:보리 (가을보리)
- 망또랑 (밭고랑)

2) 음식

- 무시집치(깍두기)
- 지리솔 (뚝배기)
- 짬지 (김치)
- 소:유 간장 (왜간장)
- 콩질검 (콩나물)
- 정구지 (부추)
- 간싯물 (젓갈의 젓국)
- 소데끼 (누룽지)
- 생알 (새알심)
- 옛질검 (옛기름)
- 그럭 (그릇)
- 부석 (아궁이)
- 수깅 (숯)
- 대꼬바리 (담배통)
- 깍때기, 집치 (깍뚜기)
- 떠개 (뚜껍)
- 벽짜때기 (부지깽이)
- 지랑물 (간장)
- 뿔군다 (불리다)
- 물왜, 무리 (오이)
- 간 (반찬)
- 빱죽 (주걱)
- 깨:미 (고명)
- 퇴배기 (튀밥)
- 감주 (식혜)
- 정지 (부엌)
- 불가래 (부삽)
- 모태 (석쇠)
- 꺼시럼 (그을음)
- 장:물종지 (간장종지)

- 양념간장 (양념간장)
- 넌:다 [(콩나물을) 기른다]
- 물이짤지 (오이지)
- 국수, 국시 (국수)
- 바가지, 고지바가지 (바가지)
- 부떠막 (부뚜막)
- 수깅 (참숯)
- 댓물쭈리 (물부리)
- 부쇄 (부시)
- 콩지름 (콩기름)
- 부루 (상추)
- 밀찌울, 밀끼울 (밀기울)
- 수지비 (수제비)
- 부친다 [(불을)지핀다]
- 곰배 [고무래(재) 곡식]
- 삼발 (다리쇠)
- 화:루 (화로)
- 꺼실었다 [(그을음)이]그을렸다]

3) 가옥

- 밀창 (미닫이)
- 빼다지 (서랍)
- 문통 (자물쇠)
- 비개 (베개)
- 영:개 (이영)
- 따배이 (또아리)
- 궁기 (구멍)
- 강지리 (광주리)
- 실가이 (시렁이)
- 빼:라 [(서랍을)열어라, 빼어라]
- 비:개싸개 (베갯잇)
- 늬이불 (누비이불)
- 요, 호청 (옷잇, 옷의)
- 돌:찌구 (돌찌귀)
- 혁칼 (흙손)
- 꾸개진다 (구겨지다)
- 용마람 (용마름)
- 지등 (기등)
- 배림빡, 백 (벽)
- 궤:짜 (궤)
- 열:때 (열쇠)
- 조오 (종이)
- 치간 (변소)
- 거랑 (내)
- 둥지리 (둥주리)
- 수비, 짐펄 (수령)
- 현반 (선반)
- 잠운다 (잠근다)
- 퇴치미 (퇴침)
- 한이불 (겹이불)
- 합달이 (두 짝)
- 굽또리, 포지 (굽도리)
- 폴손:, 폴빼(귀얄)
- 사다리 (사닥다리)
- 턴다 (틀다)
- 뒤언 (뒤꼐)

4) 의복

- 아이 빨래 (애벌 빨래)
- 대래미 (다리미)
- 서답돌 (빨랫돌)
- 대린다 (다리다)

- 담방주우 (잠방이)
- 꼬재이 (꼬쟁이)
- 집어라 (깎어라)
- 까시개 (가위)
- 비 (베)
- 씻넌다 (빨다)
- 따대미 (다듬이질)
- 두루매기, 두루막 (두루마기)
- 나비 (누에나방)
- 명, 목화 (목화)
- 빨래뽕매이 (빨래방망이)
- 조끼개쭈머이 [한복(조끼)주머니]
- 두더기 (누더기)
- 뒹뻐선 (뒹버선)
- 삼:는다 (삼다)
- 웃:깁, 감: (웃감)
- 깁:넌다 (깎는다)
- 흡는다 (호다)
- 누애 (누에)
- 포도 (오디)
- 주매이 (주머니)
- 형궂조가리, 비조가리 (형궂)
- 골미 (골무)
- 토방구리 (반질고리)
- 숨, 소개 (숨)
- 후:물빨래 (두벌빨래)
- 윤:도, 인도 (인두)
- 꼬치 (고치)
- 뽕나무, 뽕낭게 (뽕나무)
- 썰:씨 (씨아)
- 혈띠, 허리띠 (허리띠)
- 개화쭈머이 (양복쭈머니)
- 보선 (버선)
- 받때이 (대님)
- 나목신, 나막신 (나막신)
- 뜯다 (꿌다)
- 찢다 (깎다)
- 다래 (목화다래)
- 번디기 (번데기)

5) 인체

- 머리끼 (머리카락)
- 쇄:미 (수염)
- 뿔치기 (볼거리)
- 봉:새 (소경)
- 새 (혀)
- 얼개빋 (얼레빋)
- 집께손가락 (검지손가락)
- 헌:디 (부스럼)
- 찢:다 (깎다)
- 손님 (천연두)
- 자부럼 (줄음)
- 가름배 (가르마)
- 모간지 (모가지)
- 버버리 (병어리)
- 셋바닐 (헛바늘)
- 밍:경 (거울)
- 복상씨 (복사뻐)
- 쫓대뻐 (정강이)
- 까만깨 (주근깨)
- 명장구, 싱거무 (명)
- 깎따구 (딸꾹질)
- 쿨래 (구린내)

- 몸띠이 (몸뚱이)
- 가래이 (가랑이)
- 지지개 (기지개)
- 가매 (가마)
- 뿔 (뿔)
- 검둥자우 (검은자위)
- 벗다 [(눈두덩이)벗다]
- 짜방눈 (애꾸)
- 입서리, 입서부리 (입술)
- 귀히비개 (귀이개)
- 가리비누 (가루비누)
- 원:손 (원손)
- 배꾸무 (배꼽)
- 자더랑 (겨드랑)
- 주디이 (주둥이)
- 째보, 창보 (언청이)
- 두드러기 (두디기)
- 구래쉬:미 (구레나룻)
- 쭈구럼살 (주름살)
- 눈떠배이 (눈두덩)
- 눈꼬비 (눈곱)
- 콧궁개 (콧구멍)
- 깃뺨 (깃볼)
- 딱찌 [(얼굴을)땀지(마라)]
- 달비 (다리)
- 원:짜 (왼쪽)
- 궁:디이 (엉덩이)
- 이드럼 (여드름)

6) 육아

- 간얼라 (갓난아기)
- 딸아 (여자아이)
- 영구력 (엄살)
- 시갯또 (썰매)
- 매렵다, 매랴다 (마렵다)
- 곤친다 [(버릇을)고치다]
- 달꺼실군다 (쥐불놀이)
- 오짐 (오줌)
- 땀아야 [(밀을)씻어야, 닦아야]
- 아양, 애:교 (재롱(떨다))
- 불미딱딱 (부라부라)
- 신다 [(엄살)부린다, 핀다, 떴다]
- 공:구 (공기)
- 새금파리, 사금파리 (사금파리)
- 자 [(자치기의)작은막대]
- 발판 (밀싹개)
- 패이 (팽이)
- 얼라 (어린애)
- 머심아 (남자아이)
- 떼 (옷의 도)
- 동태 (굴렁쇠)
- 아작아작 (아장아장)
- 새간살이 (소꿉질)
- 지저구 (기저귀)
- 누앤다 (누인다)
- 쥘래, 찌린내 (지린내)
- 섬마섬마 (따로따로)
- 안긴넌다 (안기다)
- 시기 (새암)
- 꼰:, 땡다 (고누)
- 숨바꼭찌 (숨바꼭질)
- 추천, 거내 (그네)
- 탄다 [(얼음)지친다]
- 자세 (얼레)

7) 인륜

- 어매 (어머니)
- 대런님 (도런님)
- 아재 (숙부 호칭)
- 아부지 (아버지)
- 히아, 형 (형 호칭)
- 사우 (사위)
- 엑시 (시누이 호칭)
- 아시탄다 (아우타다)
- 아배 (아빠 호칭)
- 누야 (누나 호칭)
- 오라부댁 [올캐(오빠의 부인)]
- 매부 (매제, 매부 지칭)
- 시동상 (시동생 지칭)
- 가:부, 흘애미 (홀어미)
- 큰아부지 (중부 호칭)
- 어마이 (어미)
- 아재 [서방님 (호칭)]
- 미너리 (며느리)
- 할매 (할머니)
- 새댁이 (새색시)
- 큰아부지 (백부 호칭)
- 남우 (남)
- 이바지 (결혼잔치)
- 할미 [(저놈의)할망구(비칭)]
- 아시보다 (아우보다)
- 동상아댁 [올캐(남동생의 부인)]
- 시아주번님 (시숙 호칭)
- 홀:애비 (홀아버)
- 한:갑 (환갑)
- 왜아제 (외삼촌 호칭)

8) 경제

- 점:빵 (가게)
- 피기 (포기)
- 끝다리 (우수리)
- 논개:라 (나누어라)
- 나목찌기 (거스름돈)
- 바꾸, 바끼 (바퀴)
- 사얼 (사흘)
- 담배짖 (담뱃가게)
- 대정간 (대장간)
- 모리 (모루)
- 발, 바리 (마리)
- 주, 개 (그루)
- 무지 (뭇)
- 줄: (꾸러미)
- 서:이 (셋)
- 어느리 (에누리)
- 얼:매 (얼마)
- 뽐 (뽐)
- 마실 (마을)
- 우:수 (덤)
- 산:다 (세다)
- 이:애기 (이야기)
- 잔전 (잔돈)
- 불미 (풀무)
- 배름한다 (벼리다)
- 커리, 켄래 (켄레)
- 드럼, 갓이 (두름)
- 모춤 (벼묶음)
- 한 디 (한 되)
- 닷때/닷말 (다섯 되/다섯 말)

- 아웁 (아홉)
- 서런 (설흔)
- 신 (쉰)
- 애신 시:살 (예순 셋살)

- 수물 (스물)
- 마언 (마흔)
- 야던 (여든)
- 하릿날 (하룻날)

9) 동물

- 매루치 (멸치)
- 논골배이 (우렁이)
- 노내각시 (노래기)
- 까제미 (가자미)
- 찌레이 (지렁이)
- 빠 (가시)
- 칼치 (갈치)
- 엿재이 (소금쟁이)
- 걸검, 거럼 (두엄)
- 배실 [(닭)벼슬]
- 찌, 쾌기찌 (지느러미)
- 매꼬리 (미꾸라지)
- 페래미 (피라미)
- 깨구리 (개구리)
- 서:기 (서캐)
- 모:기, 모개이 (모기)
- 귀더기 (구더기)
- 뜸북 (진딧물)
- 매띠기 (메뚜기)
- 땅:빠 (땅벌)

- 기 (계)
- 거시, 꺼깨이 (회충)
- 홀개미 (올가미)
- 두께비 (두꺼비)
- 아굼지, 배뱅이 (아가미)
- 바다고기, 바다괴기 (생선)
- 곤지벌거지 (장구벌레)
- 시똥벌거지 (반딧불)
- 마:판 (마구간)
- 노란자구 (노른자위)
- 창지 (창자)
- 눈치이 (송사리)
- 올채이 (올챙이)
- 골배이 (다슬기)
- 베렉이, 베룩이 (벼룩)
- 파:리알 (쉬)
- 굼:비이 (굼벥이)
- 하루살이, 하리살이 (하루살이)
- 버:리, 벌: (벌)
- 고:내이 (고양이)

10) 식물

- 참꽃 (진달래)
- 고양 (고욤)
- 떡거지 (그루터기)
- 꽹지 (갈퀴)
- 뒤뿌리, 배뱅이 (빨기)

- 뺨짱우 (질경이)
- 꿀밤 (도토리)
- 갈비 (솔가리)
- 곰패이 (곰팡이)
- 멀구 (머루)

- 꽤:기, 오야 (자두)
- 꽃몽오리 (꽃봉오리)
- 짜:리십:는다 (짜리불다)
- 칠기 (칠)
- 달리, 다룬개이 (달래)
- 중:우딸: (뱀딸기)
- 말밤수 (마름)
- 복송씨 (복숭아씨)
- 가래추지 (가래)
- 등거리 (줄기)
- 깨린다 [(삭정이를) 떠다]
- 덤불 (덩굴)
- 해바래기 (해바라기)
- 개:꽃 (철쭉)
- 칠뎡풀 (칠뎡굴)
- 골피 (고비)
- 개검 (개암)
- 사가 (사과)
- 과:실, 가:일 (과일)
- 꿀밤(상수리)
- 석따리 (삭정이)
- 도:꾸 (도끼)

11) 자연

- 산만대이 (산마루)
- 바우, 방구 (바위)
- 저저모레 (그글피)
- 저먼제 (그끄저께)
- 모티이, 모래이 (모퉁이)
- 돌띠이 (돌)
- 지넉 (저넉)
- 요새 (요즈음)
- 소내기 (소나기)
- 돌개바람 (회오리바람)
- 빙얄, 비얄, 빈달 (비탈)
- 헉뻑 (흙벽)
- 물 때, 물청태 (이끼)
- 달물 (달무리)
- 넬 (내일)
- 우:박, 유:리 (우박)
- 갈:, 갈:기지 (가을)
- 아지라이 (아지랭이)
- 우후로 (위로)
- 절 (결)
- 빈달 (비탈, 벼랑)
- 저모레 (글피)
- 먼제 (그저께)
- 진갈피 (진눈깨비)
- 웅디이 (웅덩이)
- 아적 (아침)
- 별, 빌 (별)
- 갈그랑이, 가랑비 (이슬비)
- 문지 (먼지)
- 지슬 (기슬)
- 혈또 (흙도)
- 혈몽치 (흙덩이)
- 새벽 (새벽)
- 햇물 (해무리)
- 배:락 (벼락)
- 홍수, 개력 (홍수)
- 추수한다 (가을하다)
- 꾸석 (구석)
- 우 (위)
- 어데로 (어디)

12) 상태

- 낮추소 (낮추시라)
- 에리다 (어리다)
- 씨리다 (쓰리다)
- 공기다 (굶다)
- 짜러다 (째다)
- 혈한 (싼)
- 얹다 (엮다)
- 녀는다 (늪는다)
- 차서, 차가와서 (차아서)
- 말다 (맑다)
- 지푸다 (긋다)
- 널과야 (넓히어야)
- 뚜껍다[(낮이)두껍다,툭하다]
- 길:다, 질:다 (길다)
- 짹:다 (작다)
- 낮이면 (낮으면)
- 카이 ((방) 너비, 넓이, 크기)
- 개굽다 (가볍다)
- 에립우니 (어렵으니)
- 깊우이깨내 (깊으니까)
- 맑어야 (맑아야)
- 밝히야 (밝히어야)
- 서언타 (시원하다)
- 불부다 (부럽다고)
- 낮차라 (낮추어라)
- 제리다 (저리다)
- 거니리다 (거느리다)
- 빼쪽하게 (뺏쪽하게)
- 아이다 (아니다)
- 가깝다. 가직다 (가깝다)
- 비섯하다 (비슷하다)
- 짜구와 [(음식이) 짜아서]
- 빨다, 불다 (볶다)
- 에립다 (어렵다)
- 많애도 (많아도)
- 낮차라 (낮추어라)
- 게락이다 (매우 많다)
- 짤은/짤러서 (짧은/짧아서)
- 높이야 (높이어야)
- 널비 ((강) 너비, 넓이, 크기)
- 널쿤는다, 널쿤다 (넓히-ㄴ다)
- 개과서 (가볍어서)
- 짚운, 깊은 (깊은)
- 얹다, 얹우다 (얹다)
- 돼다 [(반죽이) 되다]
- 추우, 치우 (추위)
- 가렵다 (가렵다)
- 무섭끼 (무섭게)

13) 동작

- 텅갠다 (튀겼다)
- 바까 (바꾸어)
- 발쿤다 (바룬다)
- 땡기다 (다니다)
- 기리다 (그리다)
- 베리다 (버리다)
- 찢거라 (찢어라)
- 바깻다 (바뀌었다)
- 개빈다 (귂다)
- 빼끼다 (베끼다)
- 채리다 (차리다)
- 뚜디리다 (두드리다)

- 미기다 (먹이다)
- 맬기다 (말기다)
- 넘구타 (삼키다)
- 도까:도 (돌우어도)
- 마새라 (마시-어라)
- 꼬서, 빌리서 (꾸어서)
- 배렸다 [(옷을) 버렸다]
- 깎인, 꺾인 (끓인)
- 끓는다 (굽는다)
- 깎애라 (끓이어라)
- 식하 (식히어서)
- 버어서 (붓어서)
- 무쳤다 [(땅에) 문혔다]
- 돼었다 [(도둑놈이) 튀었다]
- 꼬:지 (꾸지)
- 씻차 (씻자)
- 잃어빠릿다 (잃어버리었다)
- 디지고 (뒤지고)
- 재이고 (쌓고)
- 디다본다 [(방안을) 엿본다, 들여다본다]
- 비끼다 (벗기다)
- 시우다 (서다)
- 웃따나고 (웃지도 안하고)
- 꾸와서 (굽-어)
- 무쳤다 [(손에 흠을) 문혔다]
- 깎어라 [(머리를) 씻어라, 감아라]
- 신개 (신기-어)
- 맥여라 (먹이어라)
- 끓어머 (끓이며)
- 식이고 (식히고)
- 마쌌다 (마시었다)
- 헌든다 [(머리를) 젖는다]
- 틴다 (튀다)
- 다:고 (달오)
- 꾸우 [(돈을) 빌어, 꾸어, 취해]
- 숨개라 (숨기어라)
- 잊어빠렷다 (잊어버리었다)
- 가리지 (나누지)
- 뿌시, 빠아 (부수어)

14) 대명사

- 누구노 (누구나)
- 내한테 (나에게)
- 너:덜 (너희)
- 너덜얼 (너희를)
- 지가 (자기가)
- 너덜 (너를)
- 지 (자기의)
- 저어 (자기 (집))
- 저한테 (저에게)
- 너어 (너의)
- 너어 (너희의)
- 누구인대 (누구한테)
- 니: (너)
- 너:한테 (너희에게)
- 너어가 (너희가)
- 누:로 (누구로)
- 누: (누구의)
- 저덜이 (자기들이)
- 저, 제 (저의)
- 니:가 (너가)
- 니한테 (너에게)

15) 경어법

- 앉어소 (앉으오, 앉아요)
- 가노? (가니?)
- 가니껴? (갑니까?)
- 모:노? (무엇이냐?)
- 가존:나 (가지고 오너라)
- 나:따라 (놓아 두어라)
- 멈니까? (무엇이어요?)
- 가선노, 간노? (가시었니?)
- 앉이시소 (앉으세요)
- 가게 (가요)
- 커내 (크네)
- 옴니까? (옴니까?, 오니껴?)
- 가년고? (가는가?)
- 쟁인가? (장날인가?)
- 개:시나 (계시니?)
- 가시더 (갑시다, 가시지요)
- 자이나? (장날이니?)
- 모:로?[왜(어머니가) 부를때 그 답으로]
- 만:데(야)? (왜?)
- 들온:나 (들어 오너라)
- 멍고? (무엇인가?)
- 거래:째? (그랬지?)
- 개:시소 (계시어요)
- 앉이이소 (앉으십시오)
- 가시오 (가시지요)
- 오나? (오니?)
- 오년가? (오오?)
- 가시니이껴? (가세요?)
- 장이껴?, 장이니껴? (장날이어요?)

16) 부사

- 쭝바로 (곧바로, 곧장)
- 우째, 왜 (어찌)
- 일부로 (일부러)
- 어:이 (그렇게 하겠네)
- 속히 [빨리, 급히, 속히(오너라)]
- 디:애 (나중에)
- 몽땅, 다: (모두)
- 조이 (좋이, 좋게, 실히, 잘)
- 서내 [얼른, 급히, 속히(왔다)]
- 갑작시리 (느닷없이)
- 어떻개 (얼마나, 어떻게)
- 애: (예)
- 까딱해시머 (하마터면)
- 운:제 (언제)
- 어이? (뭐라고?, 뒷소리를 높임)
- 천처이 (천천히)
- 가마이, 살곰:이, 살짝 (살짝이)
- 마치맞개 (알맞게)
- 우찌다 (어찌다가)
- 헤나 (혹시, 혹시나)
- 갑재기 (갑자기)
- 먼지 (먼저, 앞에)
- 우애 (어찌)
- 거래 (그래)

오상택